성장 과정

저는 40대에 접어들며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조직 운영과 사람 관리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성실함과 책임감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며, 제 경험과 능력을 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자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원 동기

저는 단순히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제 연륜과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40대라는 나이는 대상자와의 공감 능력, 현실적인 조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이 장점을 살려 기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관련 경험 및 경력

지난 2년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대화하며, 경청과 격려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며 어르신 프로그램 기획, 행사 진행, 사례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업무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쌓은 행정 처리 능력과 대인관계 관리 경험은 복지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끈기와 신뢰감 있는 태도입니다. 맡은 업무는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면, 완벽을 기하려다 업무 속도가 늦어질 때가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효율성과 실용성을 우선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빠르게 적응하여,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제 연륜과 경험을 살려 청소년·노인 대상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